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55호

서기 2002년 2월 6일 수요일 17

법공양 페이지

## 일체 만물만상이 다 나의 스승

### 공부가 여일하게 되려면...

**문** 저는 신심을 내서 금강경을 아침, 저녁으로 독송을 하는데 공부가 여일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가 여일하게 되어질까요. 가르침 바랍니다.

**답** 옛날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군요. 결제가 시작되면 스님들이 한 절에 모여서 참선을 하든가 경을 읽든가 하다가 해제가 되면 나가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공부를 하다가 결제가 돼서 다들 들어왔는데, 그 절의 주지 스님께서 "너희들은 무슨 공부를 하고 왔느냐?" 하니 전부 무슨 경을 읽었다. 무슨 경을 읽었다 하는데 한 스님만은, "저는 참자고 밥 먹고 똥 싸고 나왔습니다." 하거든요. 똥 싸고 밥 먹고 참자고 하는 말에, "이놈! 공부도 안하고 그렇게 집만 자고 똥만 싸고 했으니 너는 부목이나 해라." 하고는 불 때는 데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패서 주지 스님 방에 불을 때느라고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어느 날 이 스님께서 노래를 했답니다.

별이 어찌다가 방에 들어가서, 그건 입산한 걸 말하는 겁니다. 어찌다가 별이 방에 들어가서 유리가 반사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문인 줄 알고 자꾸 입으로 거기를 쫓니까 고만 입이 뭉그러져서, 몸이 떨어지니까 입도 떨어지더라. 그게 아니라는 말을 떨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몸이 떨어지니까 입도 떨어지고, 입이 떨어지니까 말이 떨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나 하면, 사람이 사랑으로 책을 보고 이론으로만 알고 하다가 이 몸이 없으면 그것도 없애고 만다는 얘기죠.

그러나 내면세계의 참나를, 주인공을 믿고 몰려서지 않고 거기다 모든 것을 맡겨 놓을 수만 있다면, 몰락 맡겨 놓을 수 있다면 그 가운데서 내 참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까지나 사랑적 마음으로 물질을 보고 글자 풀이를 하고 그러면서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은 진짜 금강경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경을 읽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경을 읽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찬찬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누가 읽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 스승과 항상 함께 하고 싶어

**문** 항상 같이 하시는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행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스승님과 마음으로 항상 같이 하고 있는 줄 아는데도 예전과 다르게 그 마음이 더욱 거북하고 벽차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제어하기 힘들만큼 강하게 그 자리에서 이끄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놓고 가고 하였지만 지금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강하게 와서 저절로 발걸음이 향하게 되고 마음이 항상 향하게 되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우리가 늘 생소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는 게 부처님 법이냐 우리의 진리니까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법이 따로 있고 우리네 법이 따로 있다면 어떻게 자기 자성을 깨우치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부처님 계시 당시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뵈고 싶어서 참 애를 썼거든요. 그랬는데 그 병자가 보고 싶어하니 하루는 부처님께서 그 병자 집을 찾아오셨어요. 병자가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부처님이 오

신다 하나기 일어나려고 했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몸중이가 일어나면 뭘 하느냐. 마음이 그렇게 간질히 돌아서 생각할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그만이지, 몸이 일어나서 뭘 하느냐. 네가 네 자성을 안다면 네 자성도 나와 돌이 아니냐.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돌이 아닌 까닭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느니라. 그러니 이 고기 덩어리를 먼저 말아라! 고기 덩어리한테다 잡하려고 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보고 싶었다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그대로 나와 나와 돌이 아니

랑한다고 하면서 집착하고 있지나 않은지 되돌아 보게됩니다. 하지만 집착과 바램의 구분이 무척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집착 없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해 나갈 수 있을까요?

**답** 여러분에게 하루살이로 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모두 말들을 하고 생각들을 하죠. 나는 당상을 사랑해. 나는 자식을 사랑해. 누구냐가 그저 만나서 좋으면 그것이 사랑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랑도 참나 사랑이 돼야지 작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마음이 바로 우주 천지하고도 직결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만물과도 서로 직결이 돼 있고 일체제불하고도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아무리 마음으로 속이려고 해봤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게 받고, 알고 지은 죄는 알고 받게 마련이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참나의 사랑, 참나의 행,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랄 수 없는 도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묘한지 여러분이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다면, 그대로 진실하게 행한다면, 그대로 진실하게 행한 도리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얼른 쉽게 말해서 "내 모습, 이 고깃덩어리를 먼저 말라. 너의 마음속에 인테나를 세운다면 내 주장자와 네 주장자가 돌이 아니냐. 그래야만 이 내 주장자를 참나에 너를 줄 수도 있고, 참나에 네 주장자가 나한테 올 수도 있다."고 하신 거죠. 쉽게 말해서 '참나에 통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만사가 어지러운 것 같지만 아주 간

고통스러우니 에너지를 좀 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 봤던들 향나무에서 자기 소나무로 에너지가 전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제 나무의 뿌리만이 자기 나무를 위해서 올려보낼 수 있죠. 그런데 일 새 하나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뿌리에 매달려서 살면서도 뿌리를 무시한다 이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자기 뿌리를 무시한다기 보다는 알쏭달쏭하게 생각하고 못 믿어서 그렇죠. 뿌리만이 나무 전체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못 믿어서요.

먼저 들어왔고 나중 들어왔고, 먼저 배웠고 나중 배웠고 이걸 떠나서, 진짜 물리 가 터져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라면,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하면, 돌이 아닌 도리에서 체험을 하고 가는 것이 바로 참선이며 바로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절에는 꼭 다녀야 하나요

**문** 저는 인터넷으로 스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칭하는 '깨달음을 얻은 자'의 가르침만이 참된 가르침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

## “마음 서로 통하면 너와 내가 둘 아니다.”

편합니다. 내일 걱정, 어저께 걱정, 오늘 후회, 어저께 후회, 앞으로 살아나갈 걱정을 하느라고 모두 아단들인대 사실은 그릇을 항상 비우면서 참나 생활로 살아가는 건 정말이지 영원한 삶을 갖다 주는 겁니다.

부부기간에도, 부모자식기간에도 참나 사랑이라는 것은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대해 주고, 서로를 만날 때 돌이 아니게 진정으로 자비로써, 만나도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 떨어져야죠? 거기다 책을 두면 진짜 사랑을 영원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은 주인공 뿌리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푸르게 싹이 트면 다 뿌리에서 말려라. 뿌리는 모든 에너

게 진리를 말하고, 이젠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말할 수 있는지요? 바다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듯이 그들의 말에 실수가 있다면, 길을 묻는 많은 사람들이 더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가끔씩 스님들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선원에도 나오고 스님들을 만나서 질문도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꼭 선원에 가야만 마음공부가 되는지요? 저처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공부하고 직접 시도해보는 것과 절에 가는 것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절에 가면 강한 자력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지요?

하든지 흥하든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씩씩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항상 이런 말을 하죠. 더하고 덜함도 없는 그 가운데서, 자유스럽게 쓰는 그 마음씨가 있기 때문에 바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의 적합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크고 작고 가 돌이 아니다. 그 가운데에 내 마음이 스스로 자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할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내가 어린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모두들 관습이나 습관에 젖어서, 고정관념에 젖어서 영 움직이고 뒤질 못해요. 여러분이 이론으로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는 겁니다. 이론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묵묵히 한 생각을 했으면 그대로 묵묵히 걸어갈 뿐이고 작용을 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거든지 큰 거든지 진실로 한 발짝 떼어놓고 행을 하는 것이 문제지, 아무리 말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안다 하더라도 그건 소용없는 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일체 만물만생이 다 스승 아님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진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다가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걸 보고 좋아하면서 "아하, 저것 참 묘하게 생겼는데"하고 쳐다본다면 그것도 스승인 것입니다. 발 뿌리에 돌이 채어 아파서 "아이고 아파" 할 때에도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채어 아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스승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깨달았으니 깨닫지 못했으니 하면서 무시를 해요? 그렇게 돌로 보는 마음으로는 저승세계를 돌이키게 법나를 수가 없어요.

일체 삼세의 부처님의 마음과 또는 일체 만물만생이 다 스승이 돼 준 까닭에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행동 하나 실천 한 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두가 스승이 돼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사함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어떻게 가볍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것이든지 업신여기고 못났으니 잘났으니 하고 때로는 깔보고 그렇게 해서 절대 될 수가 없겠죠. 모두가 생명이 있는 거고, 모두가 마음이 있는 거고, 모두가 삶이 있는 거니까요. 부처님 법이 따로 높게 훌륭하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훌륭하게 해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고, 우리들의 법이자 부처님 법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한번 나왔으면 자기가 어디서 와서 걸고 있는지, 어디로 가느라고 걸고 가는지 그것들은 알아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어만이지 중생세계의 어항 속에서 벗어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넓혀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여기에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공부하는 것도 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이런 저런 생각이 나고 그래서 생각을 발전시키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면 생각을 내지 못해서 마음의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듣고 보고 행하고 그 뜻을 넓혀서 항상 물리가 터지게끔 하시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내 마음 찾으라고, 내 뿌리 찾으라고 했으니까 뭐 절에 안 가도 되지"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한 번 오면 두 번이 느껴지고, 두 번 오면 여섯 번이 느껴집니다. 밝은 마음이 생기고, 또는 지극한 마음이 생기고, 자기 뿌리를 믿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자생 중생들이 나라고 생각해 온 그 모습이 진

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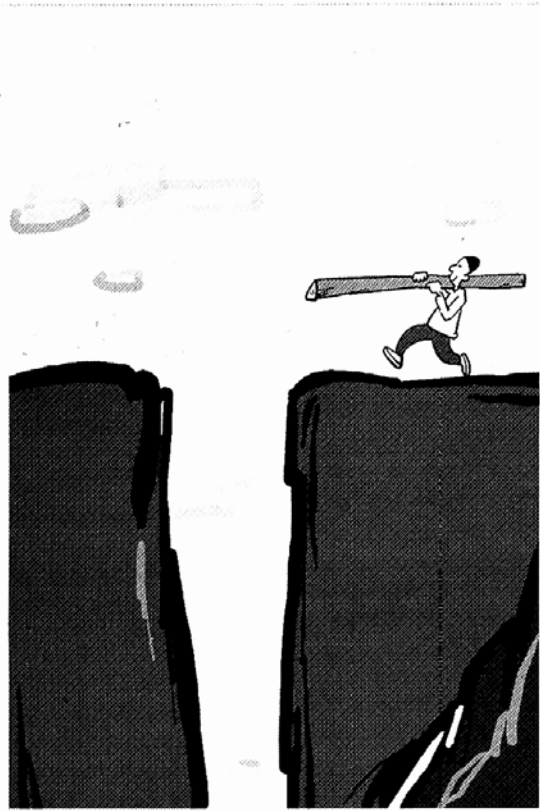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제 나무 뿌리만이 자기 도울 수 있어

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주인공' 하고 관찰 때는 벌써 공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공심에다가, 즉 자기 마음을 더불어 같이 참부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과 역대 조사님들의 마음, 내 마음과 중생들의 마음까지 다 거기에 한데 합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공' 하고 하나로 오면 그 뜻으로 '여기는 모든 스님네들이나 부처님이나 중생들이 다 포함되는 거로구나' 하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따로 모습을 구하고 법을 구한다면 언제 마음의 주인이 유무를 돌이키게 자재하여 이끄는 그 경지를 다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 집착없이 사랑하려면

**문** 스님, 저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제가 그 사람을 사

두고 사랑을 한다면 그릇이 비워지지를 못해서 진짜 사랑을 못 해요. 마음도 참나로 전하면서 끝없이 연결되는 원인이, 참나참나 만나고 연결되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이 세상만사가 돌아가니까, 끊임없이 실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건 무심(無心)의 도리이고, 말과 말이 연결돼서 돌아가는 건 유심(有心)의 도리예요. 무심과 유심이 어떻게 돌이킬 수 있었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어떻게 돌이키니까?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속일 수가 없지만 갈로는 속이는 게 많다는 얘기죠. 하지 못할 말이 많고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나를 끌고 다니는 나의 주인은 진짜로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하고 돌아가는 일과, 내가 말한 것을 전부

지를 흡수해서 올려보내고, 가장구나 이 파리는 위의 모든 에너지를 또 흡수해서 내려보내고, 서로서로 상응하면서 푸르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나무 뿌리의 이름을 찾거나, 다른 나무의 형상을 믿거나 한다면 그건 기복이지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복으로 한다면 에너지가 다른 뿌리에서 내 뿌리로 올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내 나무의 내 뿌리를 믿는다면 그로 인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려보낼 수 있지만, 이름과 형상을 밖으로 찾아 헤매다 보면 공덕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 대사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소나무가 향나무를 찾으면서 "향나무여! 내가 지금 이렇게

어린애가 처음에 발걸음을 떼어 놓을 때가 되면 천방지축 걸어가려고 하죠. 그럴 때 그 어린애가 '내가 가다가 넘어지면 어쩌나, 내가 넘어지면 떨어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며 뛰어가지는 않겠죠. 아무 생각 없이 오직 내가 발걸음을 떼어놓는다는 기쁨에만 그냥 땀 뻘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항상 '넘어지면 떨어지면 어쩌나, 잘못 돼서 넘어지면 어쩌나, 구덩이에 빠지면 어쩌나, 잘못되면 식구가 다 죽을 텐데' 하는 생각에 의해서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마음이라는 건 우선적입니다. 내 마음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바로 경계가 나옵니다. 바깥으로 작용이 나오고, 작용이 나오면 어떠한 경계가 완전히 나타나죠. 망

가짜로 안목을 닦고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행 스님의 희망의 메시지

#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어서이문